



전북교육정책

오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 동향을
교육현장에 폭넓게 전달하고자 **전북교육정책 오늘**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연구위원 양경화



들어가며

타시·도 인성교육 정책 비교



국외 인성교육 정책 비교

제언

- 미래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미래인재 육성의 핵심교육임. 또한 2024년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표방하며 역점정책으로 인성교육을 다루고 있음. 2024년은 우리교육청의 “**인성기반 학력신장**”의 원년 이므로 이에 적합한 학교 인성교육 방향성 모색 및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 정책이 요구됨

- **인성교육 개념 영역**: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개념이나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인성교육 개념을 명시하고 있음. 반면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법령을 바탕으로 고유의 조직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음**

- **비전과 목표 영역**: 교육부의 인성교육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인성교육모델을 바탕으로 한 인재상을**, 충남교육청과 대구·부산광역시교육청은 비전없이 목표만으로 인성교육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음.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인성교육 개념의 재개념화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

- **인성교육 정책 세부내용**: 대부분 교육부가 제시한 세 영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강화**를 차별화하여 제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및 영재교육과의 결합**,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사춘기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특색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인성교육원을 통한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및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특색사업**은 주목할만함

- 미국은 인성교육의 주축이 민간주도(미국인성교육협회)적 이었고 인성교육 실행시 연령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음. 프랑스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국가, 학교 및 가정의 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었음. 싱가포르는 국가중심의 인성교육체제로 모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새로운 인성교육 개념 및 비전 목표 설정
- 차별화된 인성교육 정책 내용 추가
- 인성교육통합플랫폼 구축
- 인성교육 실행을 위한 연령별 구체적 성취기준 마련

“바른 인성”
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연구위원 양경화

- I. 들어가며
- II. 인성교육 개념
- III. 국내 인성교육 정책 분석
- IV. 국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 V. 제언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성역량 강화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감이나 배려 참여와 열정 그리고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같은 인성은 개인에게 실질적 능력이 될 수 있다(이경호, 2019). 이미 2007년 p21(<http://www.p21.org>)¹⁾은 미국의 미래 핵심 역량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대화(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을 제안하였고 2015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도 강조되었다. 이 중 의사소통과 협력 역량의 바탕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및 배려이다. 인성교육은 미래인재 육성의 핵심교육이며 인성교육의 큰 틀 아래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사회정서역량, 시민의식과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성윤숙 외, 2022).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2023)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전반적인 인성 수준에서 부정적 응답이 45.9%(초 42.8%, 중 54.3%, 고 52.5%)로 나타났고,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으로 인성교육 활성화(20.0%)가 1순위로 꼽혔으며 향후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1순위 사회성·인간관계(25.2%), 2순위 도덕성(15.6%)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우리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 2024년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표방하며 역점정책으로 인성교육을 다루고 있다. 즉 2024년은 우리교육청의 **인성기반 학력신장**의 원년이므로 미래사회에서의 학교 인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인성의 개념이나 구성요인과 같은 학문적 탐색보다는 국내·외 인성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p21은 미국교육부와 미국교육협회 그리고 애플, 시스코,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거대한 재계의 리더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설립된 조직

II

인성교육 개념



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인성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성교육에서 ‘인성’의 개념은 사람의 ‘성품(性品), ’성격(性格, personality), ‘인격(人格, character)’ 등의 개념을 토대로 정의되며, 성공적인 삶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 및 인성교육에 요구되는 덕목들과도 큰 연관이 있다(이철주, 2023).

인성교육의 의미도 학문영역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학교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관련 법률 및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정리한 관련 법령과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개념이다.

<표 1> 인성교육 관련 개념

관련법률 및 교육과정	인성교육의 개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
「인성교육 진흥법」 제2조	(인성교육의 정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핵심 가치·덕목)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핵심 역량) 지식, 의사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이 통합된 능력
「2015 개정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주적, 창의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

출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교육부, 2020)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위와 같은 법령에서의 인성교육 개념을 기반으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인성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정의

학교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능력·갈등해결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가치·덕목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출처: 교육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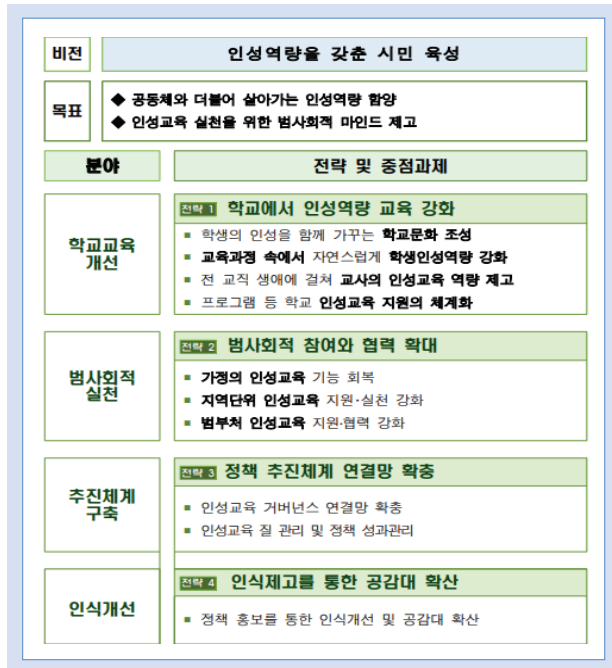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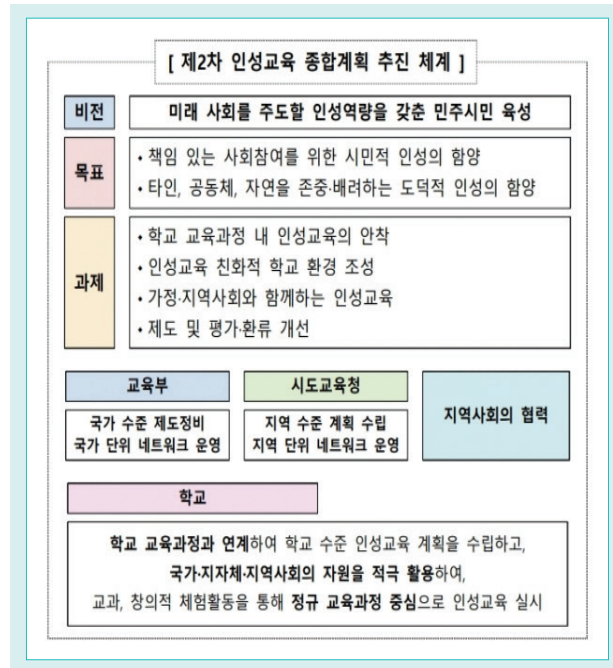
교육부는 2013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6년 1월에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 ① 공교육 전반을 통해 인성교육 구현, ② 교육 현장의 부담 최소화, ③ 가정·학교·사회 등 교육 주체 간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1차 종합계획은 인성교육의 개념 및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체감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2020년에 발표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은 인성교육의 개념과 관련 정책(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등)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사회·학교 간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명확한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과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안착을 강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인성교육의 기능 회복을 제시하였다.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내용과 변화의 특징 정리한 내용은 <그림 1>, <표 2>와 같다.

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그림 1] 1차 및 2차 인성계획 종합계획

출처: 교육부(2020).

<표 2> 교육부 인성교육 추진과제 변화 특징

구분	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성교육 강조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와 위기 해결,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변화라는 막연한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인성교육 강조 ‘혐오범죄 기후변화 원격수업에 따른 디지털 공간 교육 필요 등’ 사회환경 및 교육활동 변화를 명확히 기술
관련 정책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교육정책과의 관계성 불명확, 참여형 인성 교육 설계만을 강조 교과 교육과 구분된 일회성 행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관련 교육과 관계성 명시 정규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강조
추진체계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 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 교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정책 추진력 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추진과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공급자 시각 반영 유사, 중복과제 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적합성 낮은 과제 폐지 유사, 중복과제 통합 원격 수업 환경 반영
학교·교원 의무사항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학교 인성교육 계획 별도 수립 매년 교원 4시간 연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해 수립 교원 연수 의무 시간 1시간으로 변경 학교특색을 살려 선택·집중할 수 있는 자율권 향상

출처: 교육부(2020) 발췌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함



시·도교육청 인성교육정책 분석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살펴보았다. 이 중 경남교육청은 2020년 이후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로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개념

15개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9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3개의 시·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인성교육 개념을 명시하고 있었다. 한편,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법령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고유의 조직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었다.**

<표 3>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개념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개념	관련근거
서울, 강원, 세종, 충북, 대전, 울산, 부산, 전남, 제주	학교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 능력·갈등해결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가치·덕목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인천, 대구, 전북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경기도	학교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인성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고, 의사소통 능력·갈등해결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핵심가치·덕목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나 '민주시민'을 '미래인재'로 변경
충남	삶의 주체로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함양하는 것	법령을 바탕으로 충남 인성교육의 개념을 재정의함
경북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인성 역량을 함양하고, 인성 핵심가치·덕목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법령을 바탕으로 경북 인성교육의 개념을 재정의함

출처: 15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시·도교육청 인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부의 비전과 목표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인재상을, 충남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비전없이 목표만으로 인성교육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인성교육 개념의 재개념화에 따른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비전과 목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	
경기도	인재상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목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 함양
세종	비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목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충남	목표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 역량 함양
경북	비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핵심가치·덕목 습득 및 내면화 - 공감, 갈등해결 경험을 통한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함양 - 타인 및 공동체와 자연을 존중하고 협업·소통하는 민주시민 양성
대구	목표	앎, 됨, 함으로 성장하는 대구인성교육
부산	목표	존중과 배려가 체화된 전인격적(全人格的) 인재 양성
인천 강원, 충북, 울산, 전남, 제주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 학생성공시대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인천) - 따뜻한 품성·당당한 삶·행복한 동행(전남)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 -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 함양 - 사람다(多)움으로 성장하는 대전 인성교육(대전) -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도덕적·시민적 인성 함양 및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제주)
전북	비전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 - 생명·평화 감수성을 가진 민주적인 인성 함양 - 더불어 살아가는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적 역량 함양

출처: 15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내용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운영과제를 살펴본 결과 모든 시·도교육청은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이라는 3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 3개 영역 이외에 차별화된 영역의 세부과제를 정리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강화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디어 연계 인성교육, 동물학대 예방교육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 학생 효도 대상 및 모범학생 표창,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인성교육과 창의교육 및 영재교육과의 결합,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사춘기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특색사업,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인성교육원을 통한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및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특색사업 등은 차별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표 5> 시·도교육청별 차별화된 인성교육 정책 내용

시·도교육청	영역	세부과제
경기도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성·시민 교육 추진 • 디지털 인성·시민 교육 확산·지원 -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인천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교육 활성화 • 미디어 연계 인성교육 지원 • 인성·효·예절교육 강화 • 동물학대 예방교육 강화
충북	인성교육정책 평가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실천 확산 - 충북 학생 효도 대상 및 모범학생 표창
대전	체험중심 인성교육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심 인성교육 강화 • 인성 기반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 실천 중심 독서·인문·창의교육 활성화 - 인성강화 창의교육 활성화 - 인성채움 정보영재교육 운영
대구	스스로 가꾸는 내면 키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교육특색사업 - 마음학기제: 초6, 중2를 대비하여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 - 마음챙김프로그램: 명상, 웹기반 감정조절 프로그램 개발 보급
부산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체육·독서 및 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 • 학생인성교육원 인성체험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학생인성교육원, 인성교육센터)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특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지역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진행 서부: 공감·공동·공존을 위한 감동이 있는 서부인성교육 남부: 소통·협력·공감의 남부「다(多)온(溫)」인성교육 북부: 소통·존중·이해로 함께 열어나가는 인성교육 동래: 동래 샘(SEAM)과 더불어 인성나래 펼치기 해운대: 마음가꿈 해운대 인성 플러스(PLUS)

출처: 15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국외 인성교육 정책은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의 인성교육을 조사하였다. 선정 이유는 미국은 인성교육 관련 기구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싱가포르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를 가진 나라로, 교육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고, 프랑스는 도덕·윤리교육과 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 및 차별적 인성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선정하였다(박균열 외, 2015).



이 세 나라의 인성교육 목표와 인성교육 내용, 연수, 인성교육 정책의 추진체계 및 교원연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인성교육의 주축이 민간주도(미국인성교육협회)의 성격이 강하였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구체적 인성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프랑스는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고 인성교육이 교과 외 시간으로 연간 10시간이 배정되어 있었다. 싱가포르는 국가중심의 인성교육 체제로 교과 외 활동으로 인성교과목을 연 50~60시간 운영하여 인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국외 인성교육 목표

구분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성교육 목표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가치 및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 • 학교개선 및 학업 성취도 향상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 유럽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 조화와 협력, 공동체 구축 등 사회 통합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적인 개인이자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
인성 관련 학교교육 과정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따른 구체적 인성 성취기준 제시 • 별도의 교과는 없고 정규수업 시간에 핵심가치를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인성교육 실시 • 국어와 사회 등의 교과 중심 • 핵심가치 중심으로 교과 내·간 관련 내용을 지도 및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일 인성 가치 지도 • 학교 및 관련 기관 등에서 다양한 참고·수업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일교과, 교과의 일부, 범교과 형태로 운영 • 학교급별로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은 교과 명칭, 수업 내용과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초등학교는 시민·도덕/윤리 수업, 중학교의 시민교육, 고등학교의 시민·법·사회 교육이 편성 운영됨 • 교과외 인성교육은 연간 10시간 배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하나의 과목으로 연계하여 수업 운영 • 생애 기술 영역 해당 교과는 그 목적에 인성개발이 포함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득 할 수 있도록 구성됨 • 그 외 교과는 프로젝트 중심활동에서 인성 개발 • 체험위주 인성교과목 운영 (연 50~60시간)



<표 7>은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인성교육 추진체계 및 교원연수 의무 정도를 설명한 것이다. 미국은 민간주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정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인성교육 관련 교원연수는 교원자격증 갱신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연수를 의무화한 주도 있었다. 프랑스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사회 연계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었고 특히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모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었고 인성교육 관련 교원연수는 교과별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인성교육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외 인성교육 추진체계 및 교원연수 및 연수 의무 정도

구분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국가의 역할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 미국인성교육협회는 학생의 연령에 따른 성취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도덕/윤리교과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자료개발·보급 • 시민·도덕/윤리교육 참여 인력풀 조성 • 전국 공청회 개최 및 관련 인력 조직 • 타 정부부처의 협력 지원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과정에 인성교육 과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 • 학교 평가에 따라 보상 제공
지역사회 역할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가치 설정 등의 과정에 참여 • 교원연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교육 인력풀에 등록 및 활동 • 전국 공청회에 참여 및 의견 제시 • 학교에서 시행되는 인성교육 지원 (인력,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실습처 등) 제공 • 취약계층 아동보호 협력
가정의 역할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임 • 인성교육 참여를 위한 각종 안내문 및 방법에 대한 안내, 자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인성교육은 가정의 인성교육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 • 이러한 전제하에 가정은 시민교육 인력풀 참여·지원 • 학기말 학급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의 학교·학습생활에 대한 자문·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구성에 학부모회가 참여하는 것이 권장됨
인성 관련 교원연수 및 연수 의무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각종 강좌개설 •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워크숍, 세미나와 원격연수 형태로 운영 • 워크숍 및 세미나의 내용은 집단 따돌림 예방, 긍정적인 학교 풍토 만들기, 봉사학습 등 인성교육 전반을 다룸 • 인성교육 관련 연수 이수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연수를 의무화한 주(州)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장학관들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관련 교사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직교사들을 위해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교수자료를 개발·보급 • 지역교육자료 센터 활용, 지역내 타학교 교사팀과의 연계·협력 • 교사양성기관 교수, 장학관 간 연계 협력 등을 강조 • 인성교육 관련 연수 이수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교사 아카데미가 담당하며 교사 전문학습 공동체 운영 • 교과별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인성교육 관련 워크숍이 있음

출처: 15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새로운 인성교육 개념 및 비전 목표 설정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실력과 바른 인성”**이라는 교육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에 바른 인성이라는 교육 비전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5개의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 교육청들이 교육부가 제시하는 인성교육 개념과 비전 및 목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법령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인성교육 개념을 재개념화하였고 이에 따라 비전과 목표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독자적인 경기인성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인재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힘찬 도약을 알리며 새로운 교육비전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표방한 만큼 우리교육청도 미래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인 실력과 함께 존중과 배려, 나눔 등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핵심 덕목인 인성 함양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인성교육 개념 및 비전과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화된 인성교육 정책 내용 추가

15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유사한 인성교육 정책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중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관련 인성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동물학대 예방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인성 교육과 창의교육 및 영재교육과의 결합,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사춘기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특색사업,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인성교육원을 통한 맞춤형 인성교육지원 및 교육지원청별 인성교육 특색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인성교육 재개념화와 더불어 우리교육청의 바른 인성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성교육 정책 내용을 추가하되 단회적이거나 이벤트식의 인성교육 정책 내용이 아닌 우리 교육청의 핵심교육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인성교육 정책 내용이 요구된다.

인성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이미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삶의 세계는 온오프라인으로 통합되었고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배우는 공식은 깨졌으며 시공에 제약받지 않으면서도 학생이 성장할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성교육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통합플랫폼이 필요하다.



인성교육 실행을 위한 연령별 구체적 성취기준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인성교육 강화 방안으로 인성·시민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학교급별 맞춤형 디지털 시민역량 진단 및 적용, 교수-학습자료 제작 공유, 학생간 소통 및 참여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경기모아(more.goe.go.kr)”와 같은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청의 인성 및 기타 교육 관련 자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누리집에 창의인성교육 전문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플랫폼 (Crezone)을 연동하고 있었고 또한 인성교육 자료실을 운영하여 학부모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인성교육 통합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인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누리집 내 인성교육정보 메뉴(부산학생인성교육원)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자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교육청은 누리집 내 검색창에 인성 또는 인성교육을 검색하면 민주시민교육과의 자료마당으로 연결되고 여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고 인성교육에 활용가능한 자료의 양이 부족하여 교사 및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타 시도 교육청이나 KEDI 인성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과 MOU를 통해 인성교육 플랫폼과 연동하거나 자료 공유·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인성교육에 있어 학생의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모든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교육청이 학교급별 성취기준을 제공하고 있긴 하나 이마저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성취기준 체계의 미비는 학교에서 인성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충분히 안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윤경, 손경원, 2023).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행을 위해 성취기준은 일종의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의 발달적·문화적·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인성 성취기준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원도교육청(2022).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경기도교육청(2022).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경상북도교육청(2022). 2023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교육부(2016).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
 교육부(202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권순형, 이희현, 양희중, 도재우, 이정우(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3). 연구보고 RR 2023-15. 한국교육개발원.
 김윤경, 손경원(2023). 해외 인성교육 정책 및 실천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미국, 영국,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인격교육**, 17(3), 49-74.
 김창엽, 조정윤, 오민석, 안현용, 이윤조, 장호진 (2018). **경기도 인성교육 실천 전략 연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대전광역시교육청(2023). 2023학년도 대전 인성교육 시행계획.
 박균열, 김순남, 정미경, 주영호, 박호근, 김진규(2015).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산광역시교육청(2023).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공존의 세상을 주도하는 협력적 인성의 서울학생 2023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
 성운숙, 문호영, 천정웅, 이희현(202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2). 2023 인성교육 시행계획.
 울산광역시교육청(2022). 2023 울산 인성교육 시행계획.
 이경호(2019).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상 분석을 통한 교육과제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5(2), 143-166.
 이철주(2023).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원교육 특별호**, 71-85.
 전라남도교육청(2023). 2023 인성교육 시행계획.
 전라북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2). 2023 제주 인성교육 시행계획.
 최현우(2022). [인성교육]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인성교육, 시민성 함양**. 서울교육.
 충청남도교육청(2023). 2023 충남 인성교육 시행계획.
 충청북도교육청(2022). 2023 충북 인성교육 시행계획.

제2회 콜로키움 현장 의견과 제안

※ 아래 의견과 제안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콜로키움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 🔔 연구에서 제시한 전복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 단계별 성취기준 설정,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 🔔 인성교육 정책 사업과 더불어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관련 인성교육 추진체제 모형 개발, 교육과정 분석, 체험중심 인성교과목 운영과 그에 따른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지역의 환경, 전통문화와 예술, 노인 복지 등과 관련한 지역 사회 단체 협력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 🔔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형 연수 확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의견 등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작성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 <바른 인성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 연구원 누리집 [교육정책연구-미래교육동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시대, 변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역량과 대입제도와의 관계

연구위원 노성



들어가며

교육과정 변화에서의 학업 역량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관계

제언



- 2025년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unit)'가 '학점(credit)'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은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됨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습자의 역량 함양이 강조됨**

- 학생 선택권에 따른 교과 이수 및 수업 활동 충실도 등을 반영한 진로 선택 결정
- 과목 이수 상황이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따른 **위계성을 준수한 과목 이수**
-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함**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학업 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늘어나는 선택과목 간 소인수 강좌,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기초교과목 간 내실화 점검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평가방법으로서의 정성평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공 연계 교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1교 1명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진로체험 다양화를 위한 진로교육 조례 제정 및 유관 법령체제 정비**
-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
- 선제적 수요 대응,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전북온라인학교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 선택과목 개설 강좌 다양화**

고교학점제시대, 변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역량과 대입제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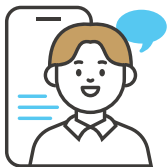
연구위원 노성

- I. 들어가며
- II. 교육과정 변화에서의 학업 역량
- III.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관계
- IV. 제언



I

들어가며



🔔 2025년 전면 도입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각자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192학점을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설정,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분 수업 16회를 수강해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졸업까지 모두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함에 있다. 일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1>과 같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단위 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기초 영역 이수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진로 선택 및 **융합 선택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인 공통 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분된다. 필수 이수학점 84학점, 자율이수학점 90학점, 총 192학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1> 교육과정 편성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단위)	필수 이수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소계			94
자율편성 단위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H)
총 이수 단위			204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군)	공통과목 (단위)	필수 이수학점
국어	공통국어(8)	8(-2)
수학	공통수학(8)	8(-2)
영어	공통영어(8)	8(-2)
한국사	한국사(6)	6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8(-2)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0(-2)
체육		10
예술		10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소계		84(-10)
자율편성 단위		90(+4)
창의적 체험활동		18(288H)
총 이수 단위		192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 단위로 과목을 편성하되, 기본 이수학점은 4학점으로, 과학탐구실험은 2학점으로 운영한다. 교과 수업 횟수는 감축되나, 현행 수업일수(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는 유지하여 학교가 교과 융합 수업 및 미이수 보충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은 학생들이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학업설계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교원의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 제고 연수 등을 지원' 취지를 발표('23.6.21.)한 바 있다.



퀘를 같이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단연 학력 신장 방안이 화두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 필요성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각종학교(가칭: 전북온라인학교)가 신설('24.3.) 예정에 있다.

<표 2> 2024학년도 전북온라인학교 교육과정 개설 강좌 현황

교과(군)	과목명	참여 학교수	신청 학생수 (학기별)	학점	유형
국어	언어와 매체	2	6	4	개방형(소인수 미개설)
사회	사회·문화	1	6/6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생활과 윤리	2	6/5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세계사	2	13	3+3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윤리와 사상	2	15	3+3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정치와 법	2	9/9	4	개방형(소인수 미개설)
	한국지리	1	10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경제	1	6	3+3	주문형(소인수 미개설)
	과학	1	10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과학	물리학 I	4	22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생명과학 I	1	8/4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화학 I	4	13/27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제2외국어	중국어	2	45/45	4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기술·가정	인공지능기초	1	25	2+2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교양	교육학	1	17	2+2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심리학	1	4	2+2	개방형(전공 교원 부재)
한문	한문 I	1	17	2+2	주문형(전공 교원 부재)
	총 33강좌	26	총 337명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재구성

🔔 이와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교과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 발 빠르게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 **변화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라는 물음에 사회, 학습자, 교과의 요구를 종합, 절충하여 답하고 이를 실천하여 성과를 개선해 가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성태제 외, 2018). 이에 따라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최근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학습자의 역량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미래사회의 변화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직결된다. 이 변화는 기후, 생태변화와 관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포용성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연적이다. 이렇듯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에서 갖춰야 할 학업 역량을 일괄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업 역량



1 교육과정의 변화



🔔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

고교학점제에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교육과정 중 보통 교과와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었다. 고교학점제에서 '보통 교과'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를 배운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I'이 보통교과의 선택과목으로 통합되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II'가 '전문 교과 I'로 이름을 바꾸었다.

2025년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 I 을 보통교과로 편제, **선택과목을 일반·진로·융합 선택과목으로 편성한다.**

보통 교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선택과목의 종류가 하나 더 늘어, '융합 선택과목'이 새로 편성된 것이며, 교육부는 '융합 선택과목'을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이나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이라고 설명한다.

<표 3> 보통교과의 기본 구조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 교과		➔	보통 교과	
공동 과목			공동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진로 선택
전문교과 I				

🔔 이수 단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단위'라고 표현한 것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학점'이라고 표현하며, 4단위 또는 4학점은 1주일에 4시간(1시간 수업은 50분)의 수업을 한다는 뜻이다.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단위로 과목이 편성되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 단위로 과목이 편성되며, 이것이 고교학점제로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 중 하나이다.

📢 이수 학점

필수 이수 학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현재는 총 이수 단위 204단위 중 94단위가 필수 이수 단위인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총 이수 학점 192학점 중 84학점이 필수 이수 학점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현재 24단위에서 18단위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이수 단위와 이수 학점은 자율 편성(이수) 단위(학점)이다. 아래 <표 4>는 일반 고등학교 기준이다.

<표 4> 필수 이수 단위/학점 비교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학점	94단위	8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18학점
자율 편성 단위/자율 이수 학점	86단위	90학점
총 이수 단위/ 학점	204단위	192학점

* 필수 이수 단위/학점 = 보통 교과 + 예술/체육/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과목 36단위/학점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학점이 8학점 줄었지만 자율 이수 학점은 오히려 4학점 늘었다. 이렇게만 보면 과목 선택의 폭이 그리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교학점제에서 다른 변화들과 함께 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고교 내신체제 개편

과목 평가결과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하며,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한다.

<표 5> 등급별 비율 및 누적 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9등급제	구간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5등급제	구간비율	10%	24%	32%	24%	10%				
	누적비율	10%	34%	66%	90%	100%				

국가교육위원회 의결(23.12.22.) 내용에 따라,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과목(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기준, 151과목 중 9과목, 6%)**은 **상대평가 석차등급**이 기재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 확대, 융합학습의 대표 교과인 사회·과학 융합 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 내실화 취지에 있다.

<표 6>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	A·B·C·D·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B·C·D·E	-	○	○	○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출처: 교육부 2028 대입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고교학점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석차 등급을 표기할 것인지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대학 입시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적은 대학 입학전형에 활용되는데, 석차 등급의 유무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을 자세히 풀어보면 [그림 1]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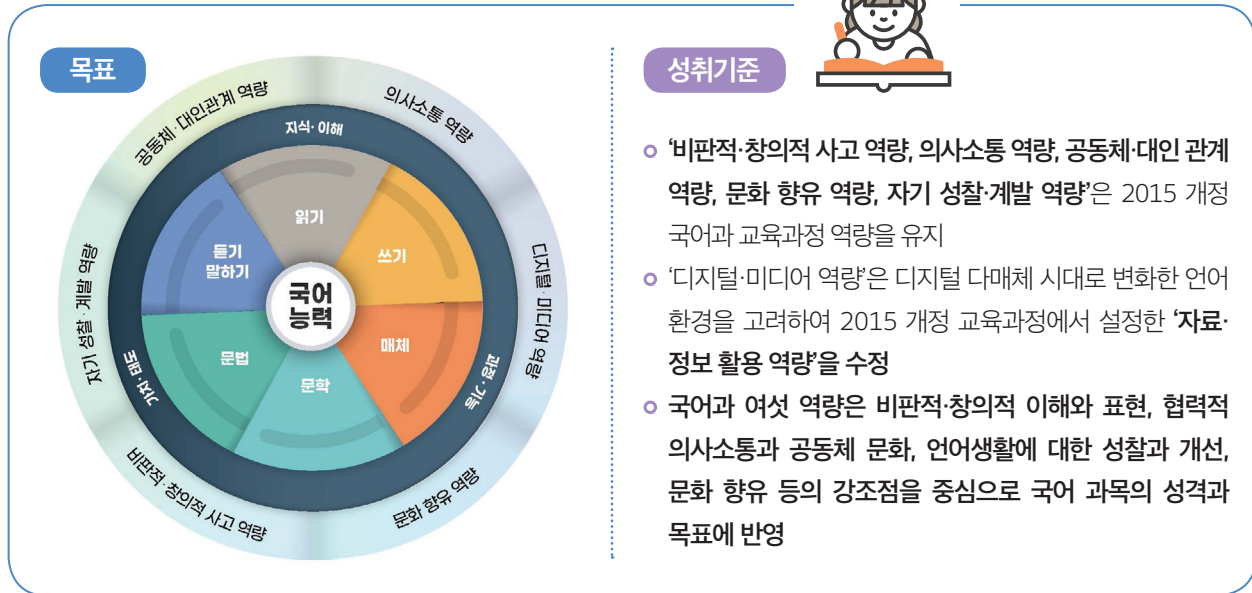
구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절대평가 성취도	수강자수	상대평가 석차등급
보통교과	공동과목	○	○	○	5단계	○	9등급
	선택과목(일반)	○	○	○	5단계	○	9등급
	선택과목(진로)	○	○	○	5단계	○	-

2028 대입제도 개편 이후

구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공동과목	○	5단계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5단계	5등급	○	○	○

[그림 1] 2028 대입제도 개편(내신 표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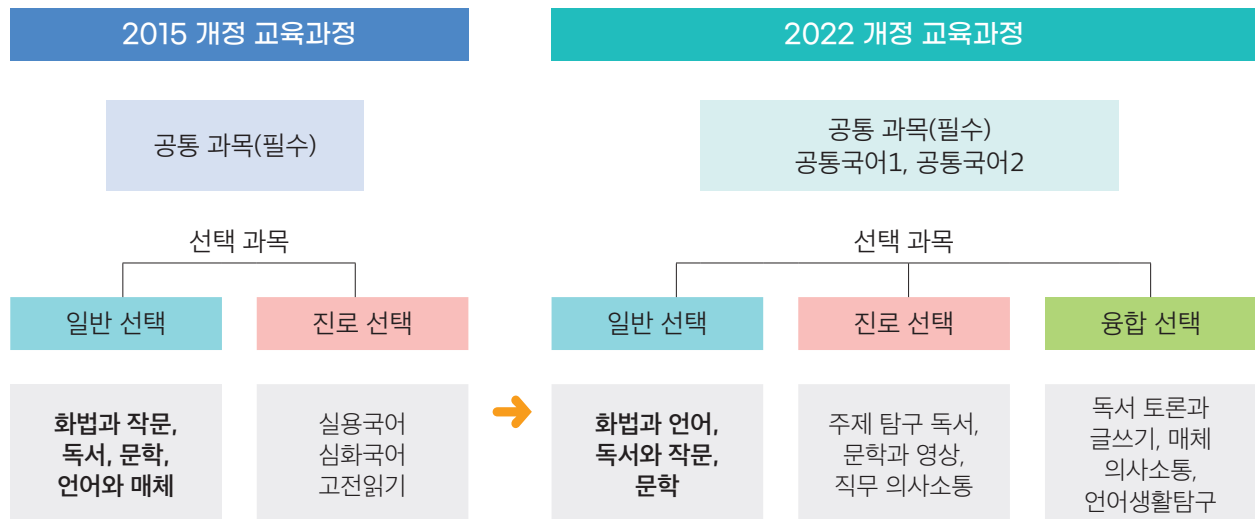
🔔 국어과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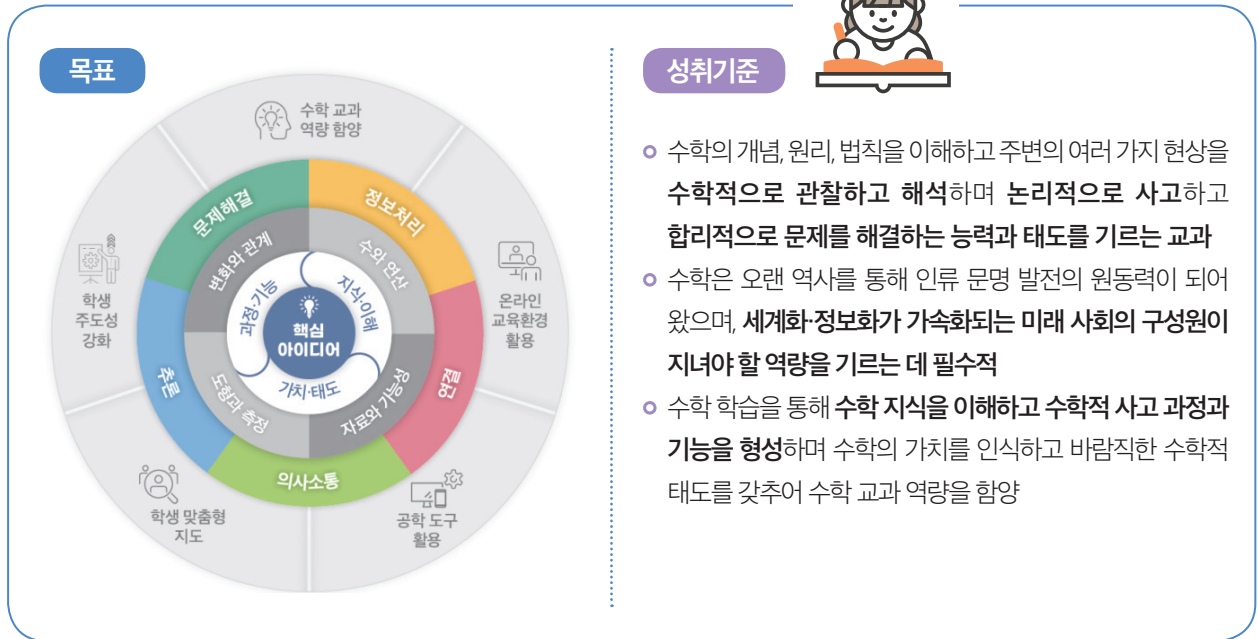


[그림 2] 교육부 고시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업 역량은, 누적적 학습경험이 요구되는 국어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심화, 확장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 역량**과 **서술·논술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주제 탐구 독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등 독서·작문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위주의 학습법이 이루어져야 함에 있다.

<표 7> 국어 교육과정 보통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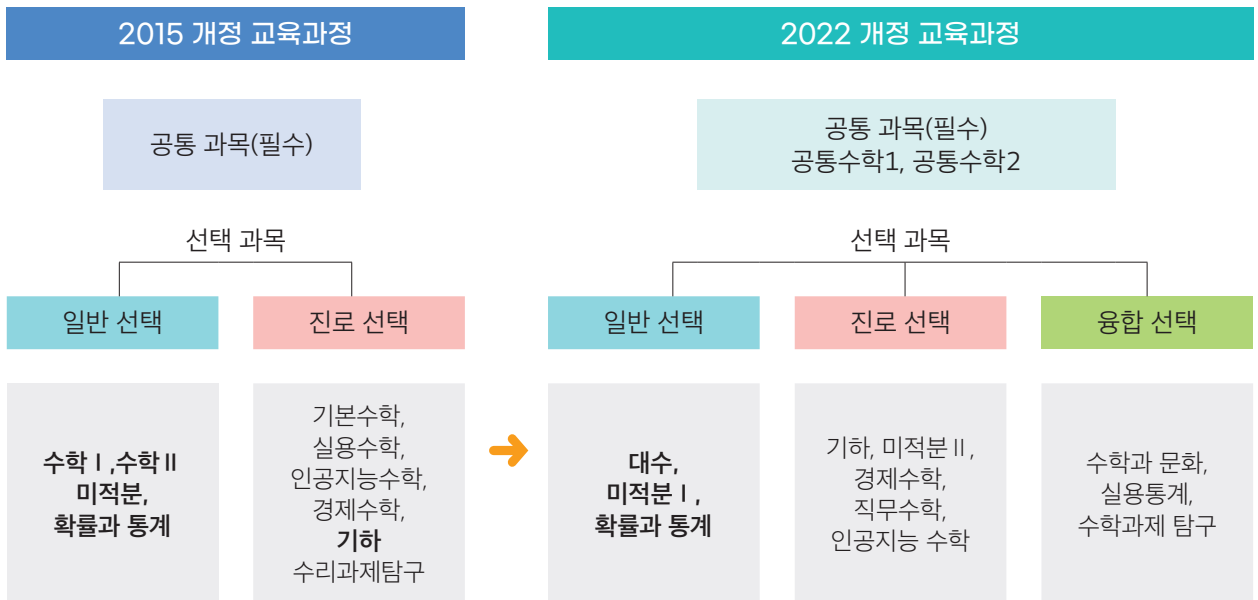




[그림 3] 교육부 고시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수학과 교육과정의 학업 역량은, 각 과목 내 위계성을 고려한 학습법이 핵심이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인 만큼 선택과목 간 전제를 고려한 수강을 해야 함에 있다.

<표 8> 수학 교육과정 보통교과





목표

영어 의사소통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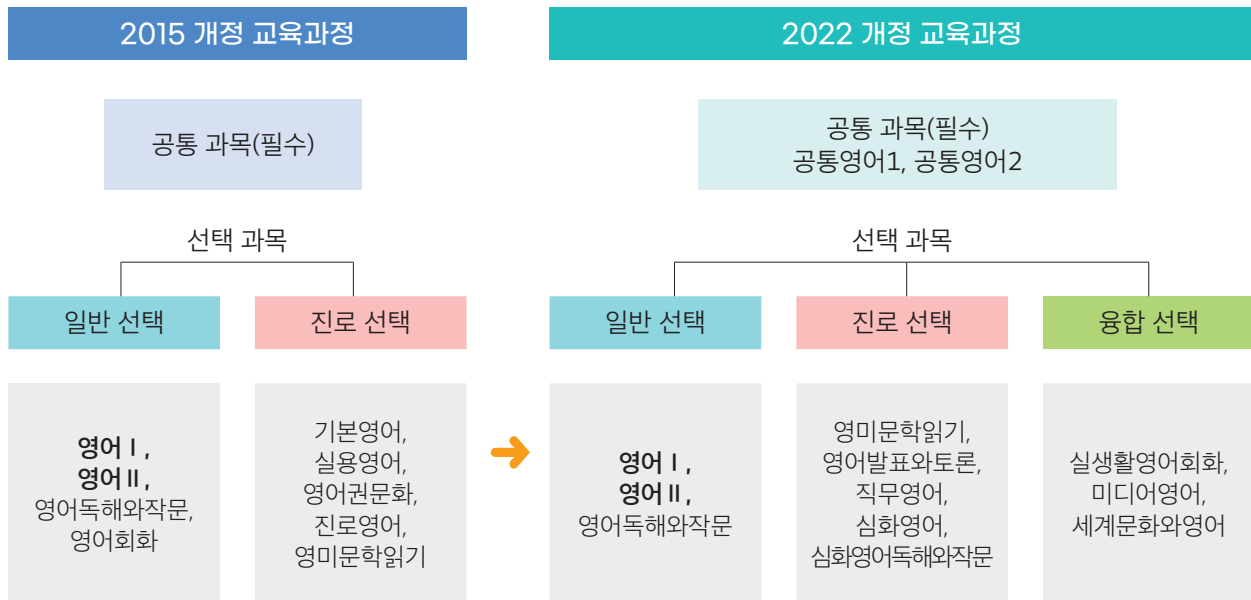
성취기준

-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 함양
-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 사이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
- 영어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 하며,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
-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환경으로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매체 자료와 정보 통신 기술 등을 수업과 학습에서 활용하며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그림 4] 교육부 고시 (별책 14)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업 역량은, **공통영어를** 통해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 함양 후, **진로를 고려한 융합 선택과목을 활용**하여 영어 지식정보의 이해와 표현 등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설계해야 함에 있다.

<표 9> 영어 교육과정 보통교과





목표



성취기준

-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민주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
- 지리, 역사, 제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 문제와 쟁점, 탐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조직하여 **사회현상과 사회문제, 공간구조와 변화, 시간의 변화와 지속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국토와 환경, **한국 사회 제도의 현실과 변화, 지구촌의 특징과 변화** 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구성

[그림 5] 교육부 고시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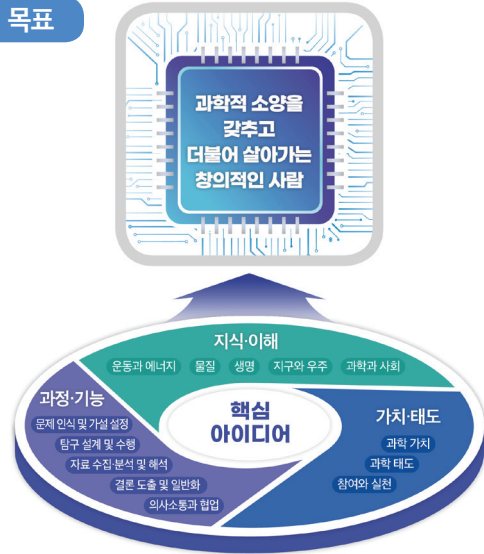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업 역량**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강이 가능**하며, 다양한 답을 찾아가는 핵심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수강해야 함에 있다.

<표 10> 사회 교육과정 보통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 과목(필수)		공통 과목(필수)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동아시아사,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고전과윤리	세계시민과지리, 현대사회와윤리, 세계사, 사회와문화	한국지리탐구, 도시의미래탐구, 동아시아사주제탐구, 정치, 경제, 법과사회, 윤리와사상, 인문학과윤리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세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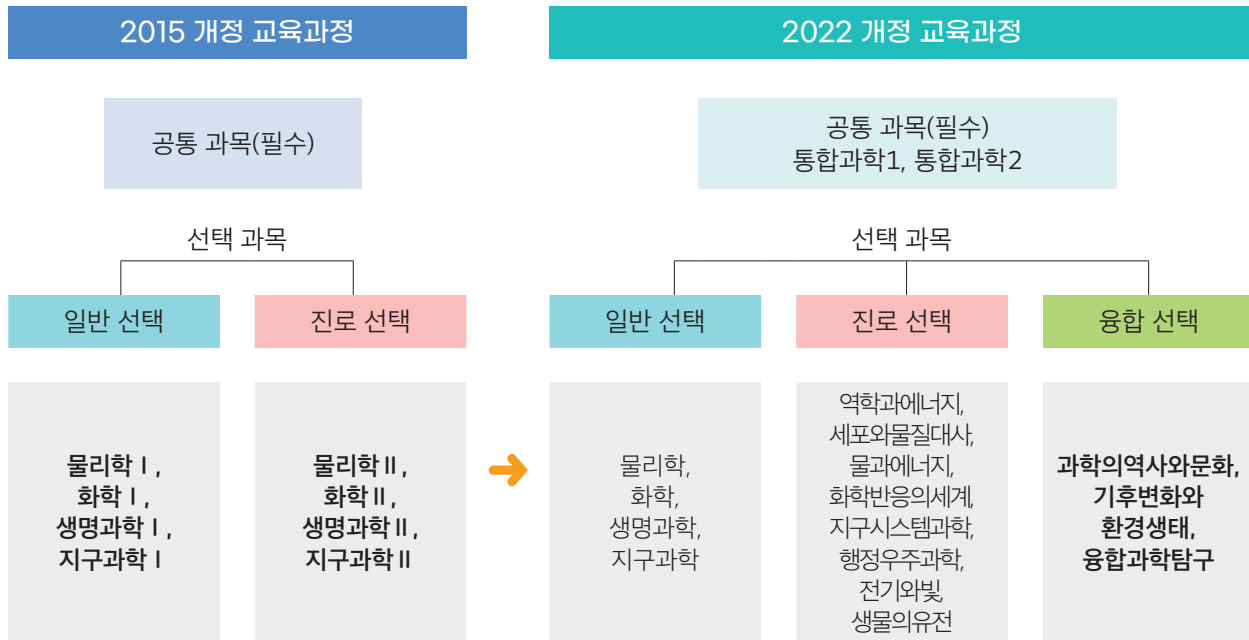
성취기준

-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
-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개인**과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참여·실천하는 역량 함양에 중점
- 자연 현상과 **일상생활**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
- '과학'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1, 2', '과학탐구실험1, 2', 고등학교 일반선택, 융합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과 긴밀하게 연계

[그림 6] 교육부 고시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재구성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과학 교과목 학습에 필요한 **과학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이다. 통합과학에서 과학적 기초역량과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연계**를 통한 과학적 역량을 강화함에 있다.

<표 11> 과학 교육과정 보통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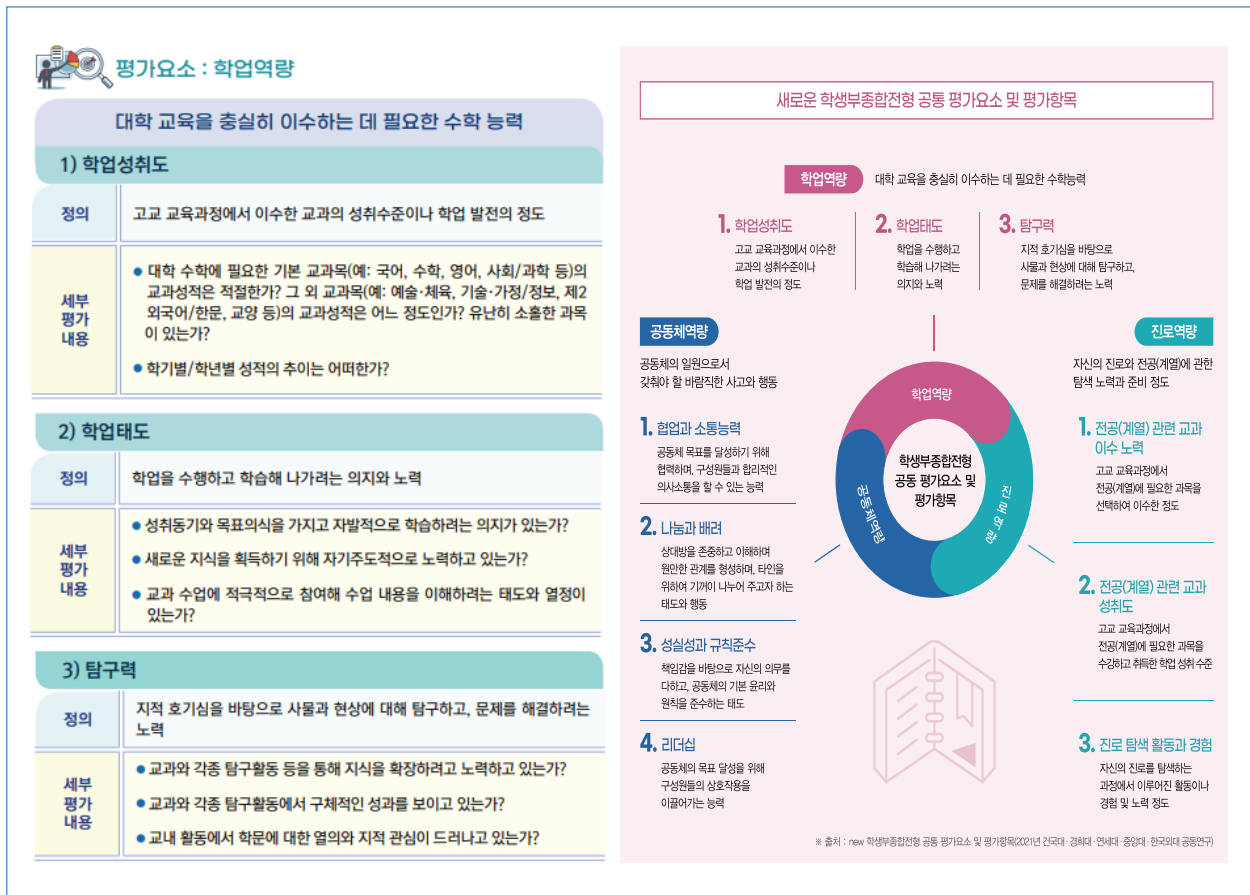




1

대학별 선택형 교육과정 학업 역량 평가 기준

대학 입학전형 유형별 주요 평가 요소



[그림 7] 2021년 5개 대학 공동연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변화에 대한 5개 대학 연구(2021)에서, 학업 역량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학업 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그리고 탐구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업 역량이 대학 입학 후 고등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업 역량의 정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와 함께 발생 된 성적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 평가항목은 일부 수정하였다.



5개 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학업 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1) 학생부교과전형 학업 역량 평가 기준

2023학년도부터 진로선택과목을 학생부교과전형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초기에는 수도권 포함 대학들이 진로선택과목을 '미반영'하고 있었고, 일부 대학을 제외한 국가거점국립대학 주축으로 정량평가로 반영하고 있다.

2024학년도 현재 수시전형은 마무리되었고, 정시전형은 진행 중이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대학입시에서는 기존에 미반영했던 대학들도 학생들의 진로선택 과목 수가 다양해지고 있다보니 정량 또는 상위권 대학 위주의 정성평가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다.

<표 12>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활용 대학 현황

대학	전형방법	정성평가 도입시기
고려대학교	학생부교과 80%, 서류평가 20%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교과 70%, 서류평가 30%	
성균관대학교	학생부교과 100%(진로선택과목 및 전문교과 정성평가)	
건국대학교	학생부교과 70%, 서류평가 30%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교과·비교과(출결, 봉사) 70%, 서류평가 30%	
경북대학교	학생부교과 80%, 서류평가 20%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	학생부교과 80%, 학업역량평가 20%	

2) 학생부종합전형 학업 역량 평가 기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학업적 측면'으로 관찰했을 때, 일부 대학은 '학업 역량' 관련 평가 항목이 '전공적합성'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학은 '학업 역량' 관련 평가 기준이 설계되지 않고 '전공적합성'으로 평가되어지는 방향성이 관찰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대학들이 진로선택과목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의 방향성을 '학업 역량'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는 면이 있다.



🔔 대학별 학업 역량 평가 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제도이다.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대입전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대학의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기초수학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 대학 입학전형의 변화



수시모집의 변화

2025학년도부터 시행될 내신 5등급 체제에서 1등급은 상위 10% 학생이다. 현행으로 보면 거의 2등급까지 포괄하는 범위이다. 아래 <표 13>을 보면 현재 성취도 A의 비율이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국 상대평가 5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 10%가 1등급이 되면 모든 상대평가 과목들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대학은 교과 등급의 평균 성적이 1.00(전 과목 1등급)인 학생들 중 누구를 선발할지 결정할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표 13> 상대평가 등급 비율과 성취도 A비율

9등급		4%	11%	23%	40%	60%	77%	89%	96%	100%
5등급		10%		34%		66%		90%		100%
성취도A 비율	일반고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								

그래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일 것이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 의학계열에 해당하는 내용일텐데,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전형 요소로 사용할 수 없고 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데, 수능 등급은 최종 변별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 교과 성적의 비중은 높되 20~40%를 학생부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정성평가의 장점은 수능만으로 자연계열 대학 전공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고, 같은 등급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면접이다. 면접은 현재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대학이 도입하거나,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 하더라도 전공 적합성을 더 까다롭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상당 수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한 상태이거나 예정이다.



🔔 정시모집의 변화

수능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지금이나 2028학년도 이후 수능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2028학년도에도 사실상 변화가 없다. 물론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주목해야 할 영역은 국어, 수학, 탐구이다.** 현행 수능은 이 세 영역에서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고 있다. 수능 과목 체계의 변화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수능 과목 체계의 변화

영역		현행(~2027수능)	개편안(2028수능~)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독서, 문학 • 선택: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p>공통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p>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수학 I, 수학 II • 선택: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p>공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통계)</p>
영어		공통(영어 I, 영어 II)	공통(영어 I, 영어 II)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사회·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9과목 • 과학: 8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공통(통합사회) • 과학: 공통(통합과학)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목: 5과목 중 택1 • 2과목: 공통+[1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 제2외국어/한문: 9과목(택 1)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택 1)

그래서 현행 수능에서는 선택한 과목만 보아도 수험생이 인문계열을 지원할지, 자연계열을 지원할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중상위권 대학들의 자연계열의 대부분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 과목들을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다소 바뀌고 있는데, 정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지원 자격을 주는 방식에서 <미적분>, <기하>, 과학 과목들을 선택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도 실제로는 장벽이 되므로, 애초부터 자연계열을 준비한 학생이 아니면 자연계열로 진학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2028 수능부터 과목 선택이 없어지고, 특히 탐구 과목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므로 수능으로 자연계열 대학 전공을 공부할 기초 능력이 있다는 걸 보증하지는 못하게 된다. 이것은 정시에서 수능 변별력이 약화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2028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므로 대학들은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서 수능 외의 전형 요소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는 학생부 정성평가나 면접이다.** 학생부 정성평가는 이수 과목, 이수 과목 성적, 특기사항으로 과학 과목과 수학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판단한다. 또 면접은 과학 과목들 중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대학들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3년간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하나의 평균 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자들은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라 학기별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 시에는 전 과목이나 기초 교과와 과목을 통해 전체적인 학업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희망 전공 분야의 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병행한다.

이에 학생들은 도래하는 고교학점제시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서의 '학업 역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교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과 그 외 교과목 관리와 함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진로전담교사
적극 배치 및 관련
법령체제 정비**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 **1교 1명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진로체험 다양화를 위한 **진로교육조례 제정 및 유관 법령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시대,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의
적극적 홍보 및 활용**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과목 수가 늘어난다. 그런데 학교마다 선생님들 수도 제한이 있고, 너무나 소수의 학생들만 원하는 과목이 있는 경우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별로 ‘공동교육과정’ 사이트를 벌써부터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에서 개설되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개설된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진로를 위해 열정적으로 공부한 학생으로 평가받지 못 할 수 있다. 이에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북온라인학교
신산업·신기술
분야 선택과목
개설 강화 다양화**

현행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준용하는 전북온라인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유형을 과목 수요 기초 조사 및 과목 수요 분석을 통해 전북온라인학교에서 개설 예정 과목을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하는 방식과 단위 학교에서 전북온라인학교에 공동교육과정 개설 의뢰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이 두 방식이 모두 유용하고 필요한 방식이지만, 보다 선제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기반의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과목 개설 등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취지에 맞춘 내실 있는 **쌍방향 원격수업 및 대면 수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202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3).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세종: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고교학점제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1).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1).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안). 세종: 교육부.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2021).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남수경, 김민조, 박주병, 이덕난, 하봉운(2020).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김진숙, 이광우, 조보경, 이민형, 임유나(2018).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성(2023). 전북 진로교육의 현 시점. **교육동향분석 제13호**.
 노성(2023).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과제. **교육동향분석 제19호**.
 백아롱, 조영희(2022). 중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매개효과:
 SES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3(2)**. 5-28.
 성태제 외(2018). 최신 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DeSeCo <https://www.deseco.ch>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s://ncic.re.kr/mobile.index2.do>

제2회 콜로키움 현장 의견과 제안

※ 아래 의견과 제안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콜로키움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 📍 연구에서 제안한 진로전담교사 법령 배치 확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진로전담교사 확대를 통해 고교학점제에서 늘어나는 일반교과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 전북온라인학교 신산업·신기술 분야 선택 과목 개설 강좌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 선택과목을 위한 교사 공동체 모임, 사례 나눔 발표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 고교학점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 과제인 IB 프로그램이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로 진로·진학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 📍 수도권 입시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명품 진학(입시)컨설팅 전담 (가칭)JB진학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의견 등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작성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 <고교학점제시대, 변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역량과 대입제도와의 관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 [교육정책연구-미래교육동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정책

오늘
2



해외논문 및 기사

유·보, 유·초 이음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과제

학습연구년 교사 장미림





‘유아 교육 및 돌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이란 학령기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함(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0).

이음교육이란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의 경험과 삶을 중심으로 ‘경계가 없는’ 유기적인 연결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유아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위해 교육적 가치와 원리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교육부, 2023).

🔔 우리나라는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와 빠른 사회 변화로 미래 유·초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음. 지난 1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늘봄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전달하며, **교육의 힘으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의 문제를 타개할 의지**를 밝힘(교육부, 2024).

🔔 OECD 30개국 유아 중 50%가 취학 연령이 되기까지 **유아보육에서 유아교육,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총 2회의 전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OECD, 2017). 이는 0-2세 표준보육과정(유아 보육), 3-5세 누리과정(유아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전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연계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임.

🔔 유·초 전환기는 자녀의 **학업 및 행동 발달에 있어서 학업 전반 혹은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임(Rim-Kaufman et al., 2000). 우리 도를 포함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유·보 이음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음**(교육부, 2023).

🔔 이 글에서는 OECD 보고서에서 정리한 성공적인 이음교육의 요건을 알아보고, 유·보 이음 교육에 관한 해외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II

OECD 리포트:
ECEC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

제목: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출처: OECD Library

발간 일자: 2017. 1. 26.

2015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정책위원회는 아이들의 웰빙과 발달에 이음교육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책 및 과제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함. 이후 **이 주제에 대한 확고한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OECD 국가 전반의 이행정책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음(2017).

**성공적인
이음교육의 요건**
(Lillejord et al., 2017)



ECEC와 학교 간의 전이에
대한 견해 공유

ECEC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내용과 방법의 균형
(교육과정 및 교육학 측면)

유아 개인의 특성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유아 발달 및 아동의 경험에 대한
ECEC와 초등학교 교사 사이의
서면 정보 공유

연수를 통한 ECEC와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학적 이해 통일

ECEC와 초등학교
근무 조건의 균형 유지

학생이 속한 가족 및 공동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융통성과 대응성

상호 의사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교직원, 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III

해외 연구 사례: 유·보 이음교육의 의사소통 과제(미국)



제목: It's Not a Routine Matter: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ommunication About Kindergarten Transition

출처: Michigan.gov

최초 게재일: 2023. 6. 1.

연구 기관: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토대가 된 '미시간 유치원 발달 보조금 요구 평가(Michigan PDG Needs Assessment, 2020)' 보고서는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출생 후 5세까지의(B-5) 시스템과 K-12 시스템 간의 전환, 부모 선택의 장벽에 관해 다루고 있었음. 연구 결과, ECEC간 혹은 ECEC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족은 자녀 지원에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 사항이었음.

하지만 현장에서 이음교육이 사회의 요구만큼 전환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보육기관과 유치원 간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전이의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란 사실을 발견함. 이에 본 연구는 이음교육을 위해 유·보, 유·초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전 보고서 내용을 확장하려고 함.

연구 방법

2022년 5월에서 12월 사이 AIR®(The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이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연구 내용

- ① 초등학교 교장은 유·초 연계 과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ECEC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는가?
- ② 교장들은 어떤 유형의 ECEC(예: 공공/민간)와 소통하고 있는가?
- ③ 소통 목적은 무엇인가?
- ④ 교장들은 ECEC와 소통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 ⑤ 지역 ECEC와 의사소통하는 데 장애물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 초등 교장의 경우 ECEC 간 혹은 ECEC와 초등교육 관련자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한 캠퍼스 공간 안에 ECEC와 초등학교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교사 간 의사소통은 제한적이라고 답함. 그나마 공·사립 ECEC와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교 기반 프로그램 및 기타 민간 보육 센터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음.

○ 유아보육 기관과 학교 사이 의사소통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된 내용은 주로 입학 예정인 유치원에 대한 입학 정보와 학생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임.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예로, 학교장과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입학 전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음.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예는 좀 더 잘 구조화되어 있는데,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입학 전 유아의 정보를 구글 공유문서로 인계받아 추후에 초등학교 교사 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유아보육 기관에 사회복지사와 유치원 교사가 방문하여 해당 학생과 개별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준비 과정**도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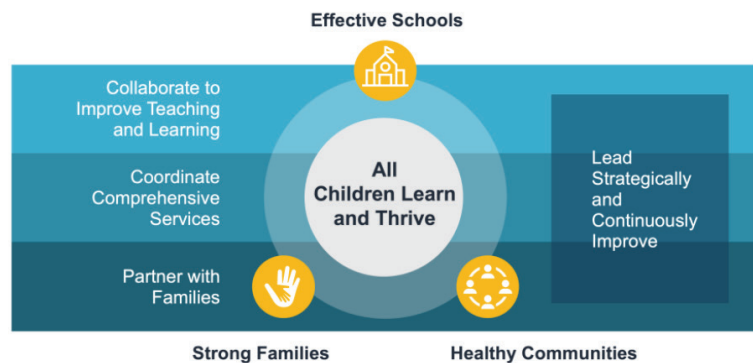
○ 미국은 유·보 연계 시 ‘**First 10**’* 접근법을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유치원 교실 방문 협조, 예비 유치원생들의 정보 작성 요구, 유치원과 학교의 주요 행사에 유아보육 교사 초청**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해당 기관에선 **지역 민간 보육 기관 파악** 등을 하고 있음.

* First 10(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 EDC)

아이의 생후 10년은 결정적 발달 시기임. 이 기간에 저소득층 이하의 가정에 속한 2,200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에게 기회와 성취 격차가 빠르게 시작됨. 연구 결과,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평등 실현에 있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점이 클 것으로 보임.

EDC의 First 10 전략은 ECEC, 초등학교, 지역사회단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웰빙, 학교 준비, 학교생활 성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e First 10 Approach



대표적인 First 10 실천 전략으로는 초등학교 연계 놀이·학습모임 제공,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조정, ECEC의 질 개선, 유·보 전이 조정, 유아보육·교육 공동 전문성 개발, 초등학교 1~3학년 교육과정 및 지도 개선 등이 있음.

[그림1] First 10 접근법 (출처: first10.org)

- 주로 유아보육과 유아교육 기관의 운영 일정이 달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 특히 신임 교장의 경우 지역 ECEC의 포괄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결론 및 제언

- 지역 학교장들이 서로 모여 새로운 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해야 함.
- 특히 신규 관리자를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창구를 열어두어야 함.
- 교육청 및 유·보 관리 기관에서 지역 내 유·보 기관 및 관리자 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함.
- ECEC와 K-3 시스템(First 10)에 걸친 소통과 협력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함.



양질의 교육 평등 실현에 있어 **성공적인 유·보, 유·초 연계를 위한 계획 및 실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오랜 연구와 경험으로 유아에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적응까지가 개인의 학업 전반과 삶의 질 결정에 결정적인 시기라는 인식은 높아졌음. 하지만 **교육 평등 실현에 있어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환경 차이, 교육청에 등록된 유아보육 시설 및 기타 민간 돌봄 시설과 유치원의 연계, 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해결 과제**라 생각함. 미국의 First 10 전략과 같은 표준화된 접근법 및 실행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시내와 농어촌 지역이 혼재된 중소도시형 이음교육 모델을 구안하는 작업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2024 전북교육계획(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It's Not a Routine Matter: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ommunication About Kindergarten Transition(2023). Michigan.gov. <https://www.michigan.gov/mileap/-/media/Project/Websites/mde/ogs/pdgb5/Preschool-and-Elementary-School-Communication-about-Kindergarten-Transition.pdf?rev=e00126cbf6c94ca59ded73ba89f70a2a>.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2017). OECD Library.

WHAT IS ECEC?(2020).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https://lbproduction.s3.amazonaws.com/5bfbf0b9e035167ab4eca780/extras/whatisceec.pdf>

<https://first10.org/why-first-10/>

<https://www.edc.org/first-10>

-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과 의견 등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작성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 <유·보, 유·초 이음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 [교육정책연구-미래교육동향]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2024 주요연구

학부총심미래교육

실력 전라북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학력 신장	미래교육정책연구소 2024 주요연구	실력 스마트철판 보급에 따른 수업 효과성 연구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스마트미래교육실 구축과 다자택 수업 역량 강화	인성 바른 인성을 위한 국내·외 인성교육 정책 분석 <small>정책 추진 6대 분야</small> 공동체 존중과 배려 따뜻한 관심을 키우는 인성교육
실력 에듀테크 보급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인식 변화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스마트미래교육실 구축과 다자택 수업 역량 강화		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방안 <small>정책 추진 6대 분야</small> 자치 더 참담한 전북교육	
실력 스마트기기 교육적 이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스마트미래교육실 구축과 다자택 수업 역량 강화		인성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조성 방안 <small>정책 추진 6대 분야</small> 미래 유아의 행복함 배움 놀이 중심 유치원	
실력 탄소중립교육의 국내외 동향 분석 <small>정책 추진 6대 분야</small> 공동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실력+인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과제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실력 특수교육학생의 에듀테크 활용 방안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실력+인성 학생 해외연수 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 <small>10대 핵심 과제</small>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에는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다양한 연구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

<https://zrr.kr/FloH>

전북교육정책

